

근대 한국의 원점, 정동의 탄생

Modern Korea and the birth of Jungdong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정동은 서울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지명의 하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근대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정동의 유래

정동이라는 지명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이 위치한 데서 유래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경처(京妻)였던 강씨는 1392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현비로 책봉되었으나, 병을 얻어 판내 시부사 이득분의 집에 피접하였다가, 태조 5년 8월 13일에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이에 봉상시에서 존호를 신덕왕후라 하고 능호를 정릉으로 정함에 따라 신덕왕후의 능이 위치한 곳을 정릉이라 부르게 되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정릉의 위치는 취현방 북원으로 지금의 정동 4번지(현 영국대사관)로 추정된다. 1406년의 태종실록에 따르면 '정릉이 도성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의 경계가 너무 넓으니, 능에서 1백보 밖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의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세도가가 정릉의 좋은 땅을 점유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정릉은 1408년에 태상왕이었던 태조가 돌아가신 후 1409년 2월 23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

는데, 지금 정릉(貞陵)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館舍, 太平館)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라는 의정부의 상소에 따라 정릉이 동소문 밖의 사을한리(沙乙閑里, 현 정릉) 산기슭으로 옮겨졌다.

정릉이 옮겨진지 한 달여 후에는 능의 정자각이 태평관의 북루(北樓)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태종이 직접 이귀령에게 '참찬(參贊)은 태평관 감조 제조(太平館監造提調)이니, 정릉(貞陵)의 정자각(亭子閣)을 헐어서 루(樓) 3칸을 짓고, 관(館)의 구청(舊廳)을 가지고 동헌(東軒)·서헌(西軒)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엄(黃儼)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 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짓고, 동쪽·서쪽에 헌(軒)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封墳)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石人,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문인석, 무인석 등을 지칭한다)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고 일렀다. 이에 대해 황희(黃喜)가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으나, 태종은 석인을 주초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땅에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한다.



〈그림 1〉 광통교 하부 교각에 사용된 정릉의 석물

이어서, 1410년 8월에 청계천이 범람하여 흙으로 만들어졌던 광고가 무너지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정릉의 석물을 사용하여 광고를 새로 놓았다고 한다. 이때 광통교의 석축에 사용되었던 정릉의 석물들이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다시 드러났다.

한편, 태조는 신덕왕후(?~1396.8.13)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흥천사를 지었다. 1396년 12월 1일자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흥천사에 들러 사찰을 짓는 공장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가 흥천사 건설에 관심이 컸음을 보여준다. 이듬해 2월 19일에는 임금이 처음에 정릉(현 정동)에 절을 세운 것은 아침저녁으로 향화(香火, 향을 피운다는 뜻으로 '제사'를 이르는 말) 만들 받들기 위함이었는데, 김사행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환관을 지내면서 조선 건국 후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김사행은 내부시판사에 이어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에 가락백(駕洛伯)으로 봉해져 세를 누렸으나,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¹⁾.

흥천사의 건립이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만큼 정릉이 도성 밖으로 옮겨진 후에는 그 역할이 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사찰의 역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조실록에는 신덕왕후의릉이 옮겨진 후에 비가 적은 해에는 흥천사에서 주로 기우제를 지냈으며, 일본의 사신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가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찰의 역할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다. 1485년 성종 16년에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이 가뭄 때 부처의 힘을 빌려 원각사와 흥천사에서 기우제가 행해지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1491년 6월 16일에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흥천사 수리를 중지할 것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이 '내가 이단(異端)을 숭상해서가 아니다. 조종조(祖宗朝)부터 왜인으로 조정에 오는 자 중에 혹 보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흥천사의 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흥천사를 보기를 바라는 왜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수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504년 연산 10년에 흥천사에 불이 나면서 폐허가 되면서 정동은 역사의 뒤편길에 묻혔다.

정동, 조선의 미래를 품다

정동이 조선의 역사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이 맞이했던 미증유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을 통해서다.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정동에 위치했던 월산대군의 사저를 임시 행궁으로 삼음에 따라 경운궁과 함께 정동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이

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한양을 내주었던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한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한양에는 선조가 마땅하게 거처할 곳이 없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탔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 26년 10월,

“상(上)이 아침에 벽제역(辟除驛)을 출발하여 점심 때 미륵원(彌勒院)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정릉동 행궁에 이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성으로 돌아오더라도 선조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처지에서, 정부는 구월산대군의 사저를 시어소로 정했고, 그 집은 자연스럽게 정릉동 행궁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월산대군 집이 행궁이 되면서 수리와 동시에 계림군²⁾의 집을 행궁에 편입하는 등 협소한 궁역을 넓히기 시작했으나, 당시 정릉동 행궁의 영역과 건축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 광해군을 거쳐 인조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정궁을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경운궁 궁역의 포함되었던 가옥중 선조가 침전으로 사용했던 석어당과 인조가 즉위한 즉조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면서 경운궁 궁역은 해체되었다. 궁역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조당과 석어당을 보존케 한 것은 이들 두 건물이 국난 극복의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입각하여 건물을 보존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조이후 경운궁은 역사의 전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경운궁은 영조대에 이르러 몇 차례 기록에 등장하는데, 1748년(영조24년) 경운궁에 가서 어제(御製, 임금이 몸소 지은 글) 4편을 내렸고, 1769(영조45년)년에는 '대학연의(大學衍義)'(대학의 깊은 뜻과 그 이치를 해설한 책)를 행했고, 1770년에 이어 1773년(영조49년)에는 환도 3주갑(3周甲, 180년)을 기념하여 경운궁에 임어하기도 하였다. 경운궁은 고종에 의해서도 기억되었다. 고종황제는 1904년 대화재로 즉조당과 석어당이 소실되자, 즉조당과 석어당 보존의 뜻을 새기고 의미를 기리기 위해 서까래 하나 바꾸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해왔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난 극복의 상징적 장소였던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개항과 함께였다. 1876년 개항이후 서울은 국내외 각 세력이 힘의 각축을 벌이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공사관이 조선에 설치되었지만, 그 위치는 도성 밖이었다. 이는 도성 내에 외국인의 거주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만 해도 조선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제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도성 내 거주 문제는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달라졌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1차 왕자의 난.

2) 성종의 셋째 아들



〈그림 2〉 정동지역 공사관 위치도

1882년 5월 22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때 조약은 강화도조약의 불평한 점이 개선되어 양국간의 지위가 상호간에 동등하게 처리되었고, 이는 이후 서양 각국과 조약체결의 기준이 되었다.

1883년 5월 조미조약에 따라 미국의 푸트(Lucius H. Foote)공사가 부임하면서 공사관이 개설되었다. 외교타운 정동의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이들 국가의 공사관이 순차적으로 정동에 자리 잡았고 정동은 명실상부한 외교타운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행보는 유럽국가와는 달랐다. 일본이 1876년 조선과 제일 먼저 국교를 수립되었지만, 1880년 12월 17일 공사관은 도성 안이 아닌 서대문 밖 청수장(현 금화초교 위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으로 소실되었다. 일본이 다시 자국의 공사관을 지은 것은 1884년 11월 3일 지금의 천도교 중앙교당 주변인 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공사관은 다시 1884년 12월 7일 갑신정변으로 소실되었고, 안전을 고려한 일본은 1885년 1월 12일 왜성대로 공사관을 옮겼다. 서대문 밖에 자리 잡았던 일본공사관이 임오군란으로 소실된 것을 기회로 서양의 공사관을 따라 도성 안으로 공사관을 옮겼으나 갑신정변으로 또 다시 공사관이 소실되면서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던 남산의 북측 산록으로 들어간 것이다.

1882 미국에 이어 같은 해 청국과 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이태리와 러시아 그리고 1886년에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에서 중국은 현 명동에 공사관을 설치하였으나, 서양 국가들은 예외 없이 정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왜? 정동이였을까?

서양 국가들이 정동에 자리 잡은 이유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정동이 아닌 개항 당시의 정동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정동은 서울의 중심가로인 세종대로³⁾에 인접해 있어 물리적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개항 당시에 광화문 네거리는 육조거리와 종로가 'T'자로 만나는 곳으로 태평로는 없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동은 도성의 간선도로인 종로와 남대문로에서 벗어난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태평로는 1897년,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남대문로와 정동을 연결하는 소공로는 환구단이 조성된 1~2년 후에 개설되었다. 〈그림 3〉과 같이 개항 당시 종로와 남대문로에서 떨어진 정동의 입지는 물리적인 중심과는 거리가 먼 비교적 한적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정동의 입지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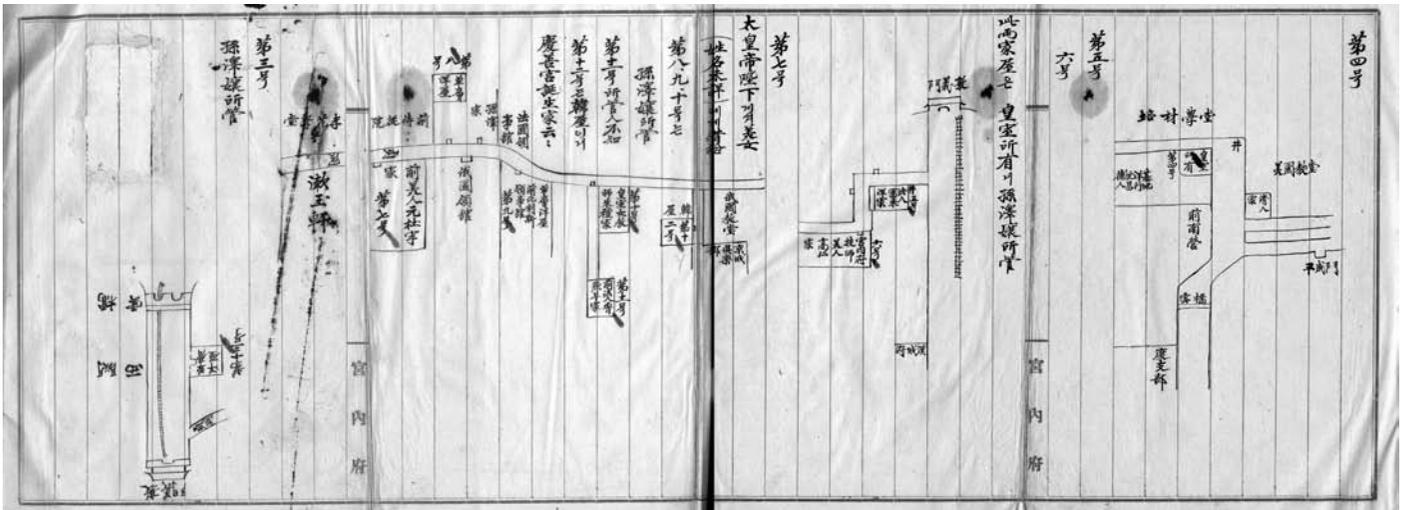
〈그림 3〉 개항 당시 도성의 도로구조와 정동의 입지

리와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도성 내에서 자유롭게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낯선 풍속에 우리의 미풍양속이 훼손당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동 주변에는 수어청(守禦廳, 조선시대 군영으로 1894년에 폐지됨)과 군기시(軍器寺) 등 정부 소유의 땅이 많아 정부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곳이었다. 동시에 정동의 입지는 외국인들의 이해에도 맞았다. 이 역만리 낯선 나라에서 수적으로 적은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필요가 있었다. 비록 대로에 면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행정 중심인 경복궁과 육조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 서소문과 서대문에 인접한 탓에 도성 밖으로 피난하기에도 유리한 입지였다. 따라서 정동은 조선정부와 서양의 각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 청국과 일본국의 공사관은 정동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국의 공사관은 일인들이 모여 사는 남산에 자리 잡았고, 청국의 공사관은 남대문로에 면한 도심의 요지에 자리 잡았다. 일본국과 청국이 독립적으로 공사관의 입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남산의 북측산록에 자국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조선에 대해 지켜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

3) 2010년 종로구의 세종로와 중구의 태평로를 합쳐 세종대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그림 4〉 정동길 주변의 외국인과 한인 소유건축현황이 조사되어 있다. 출처: 서울대 규장각 소장 조복문서

표 1 서울 거주 외국인 통계

국적	독립신문/ 1897년 4월 1일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5일
	남	여	합	가족수	
프랑스	23	5	28	7	57
러시아	56	1	57	22	12
독일	6	3	9	7	19
미국	47	48	95	40	131
영국	25	12	37	41	88
청국	1,246	37	1,273	10	2,036
벨기에					1
일본국	1,035	723	1,758	640	
	2,428	829	3,257	767	

심의 대로변에 자리 잡은 것이다.

국가 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면 정치적인 외교관계 외에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교역을 위한 항구와 외국인의 자국 내 거주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거주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거주는 항구도시와 수도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되고, 제약의 강도에 따라 조계지가 설정되거나 일정한 지역 내 거주가 허락되지 않기도 한다. 통상 조약 체결 후에 외국인의 도성 내 출입은 허용되었지만, 상시 거주가 한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882년 미국 및 청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도성내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면서, 외국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97년 독립신문과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도성 내 거주 외국인의 통계를 살펴보면 청인과 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서구 국가의 거주인들은 모두 합쳐도 청인이나 일인의 반도 채 안 되는 작은 숫자였다. 따라서 도성내 외국인의 거주지 역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일인들은 남산의 북측 산록에 그들의 거류지를 형성하였고, 일본 공사관은 나중에 거류지 쪽으로 옮겨졌으며, 중국인은 비교적

도시 중심인 북창동과 서소문 그리고 수표교 근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고, 서구인들은 정동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서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의 형성에는 정동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각국 공사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각국 공사관의 존재는 북미선교사들이 정동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고, 정동의 선교사는 정동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동은 육영공원과 배재학당 그리고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근대교육의 발원지가 되었으며, 가톨릭, 개신교, 러시아정교회, 성공회를 비롯하여 구세군까지 자리함으로써 정동은 외교타운이자 동시에 선교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료선교 차원에서 시병원과 보구여관이 세워졌으나, 보구여관이 동대문으로 이전하면서 정동에서 의료선교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외국공관의 수수께끼! 일본 영사관과 미국공사관

공사관은 한나라의 국력과 문화적 역량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정치색이 짙게 배어 있는 건축물이다. 국가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상대 국가에 자신의 국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을 지닌 국가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역량을 드러내곤 하지만, 가장 일



〈그림 5〉 영국공사관 초기모습



〈그림 6〉 러시아공사관 초기모습



〈그림 7〉 독일공사관 초기 모습

반적인 것은 공사관이나 영사관 건축을 통해 자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대사관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국력과 문화적 수준은 물론 주재국이 자국에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구국가들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던 정동은 대사관 건축의 진열장이자 대한제국에 대한 자국의 관심사와 자국의 능력을 전시하는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한옥공사관

정동에는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미국공사관에 이어 영국공사관, 프랑스공사관, 러시아공사관, 독일공사관 등이 차례로 정동에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외국 공관들은 초기에는 한옥을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국의 공사관을 새로 지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공사관은 달랐다.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공사관(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벨기에 등)은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지어졌지만, 미국의 경우 처음 공사관을 개설했을 때 사용했던 우리의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 정동에 자리 잡으면서 한옥을 구입하여 공사관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에서 파견한 초대공사 푸트

(Lucius H. Foote)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883년 5월 12일이었다. 당시 푸트공사 일행은 독일인 뮐렌도르프(1847~1901) 집에 머물다 정동의 민씨 일가의 집을 사들였다. 이것이 정동지역이 서양인의 집단 거주지로써 외교타운 정동이 탄생하는 시작이었다. 한성부 기록에 따르면, 푸트공사는 민영교의 기와집 141칸과 빈 대지 250칸, 민계호의 기와집 120칸과 빈 대지 300칸, 김감역의 기와집 9칸과 초가집 6칸 및 빈 대지를 사들였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빠른 시기에 상당한 규모의 가옥과 대지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 달리 공사관을 새로 짓지 않고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렌(Horace N. Allen)은 조선건문기(Things Korean, 1908)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대표자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의 공사관보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조선 고관의 집이었던 이상한 모양의 아름다운 방갈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자신들의 건물이 비록 황궁에 인접해 있고, 부지가 넓고 쾌적하지만 건물 자체는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알렌의 기록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건물이 구입 당시의 조선의 전통건축이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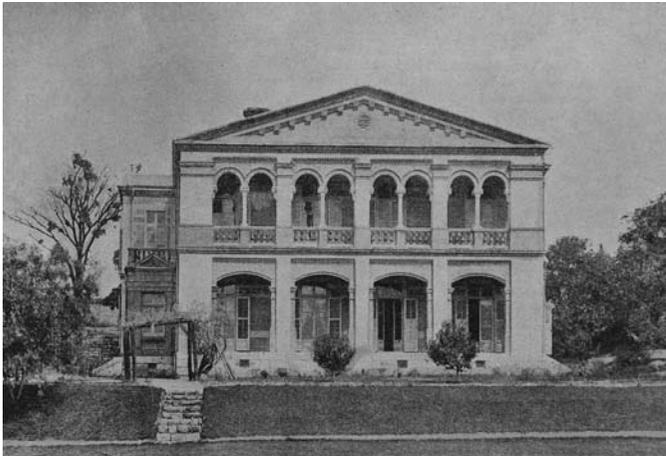
이에 반해 1900년 2월 24일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외부 고문관으로 활동했던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는 '비망록(Undiplomatic Memories)'에서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공사관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미국공사관이 서울에서 가장 편안한 곳 중의 하나이며, 청국인 청부업자들이 유럽건축을 모방하여 지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과 영국공사관 건물들은 칙칙하고 음울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공사관이 '조선의 전통건축을 잘 다듬어진 화강암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 올린 건물이며, 벽체가 진흙이나 벽돌로 되어 있어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으며, 육중한 참나무나 밤나무 대들보로 받쳐진 지붕은 수 톤의 흙으로 채



〈그림 8〉 한옥의 미국공사관



〈그림 9〉 미국공사관 대문



〈그림 10〉 영국공사관



〈그림 11〉 러시아공사관

워서 높이 올리고 그 위에 기와를 씌워 놓아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강추위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샌즈가 우리의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렌은 조선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면서, 주한 미공사관의 지위가 영사관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기록한 내용은 미국정부가 새 공사관을 짓지 않은 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비록 알렌은 결과적으로 새 건물을 짓지 않은 일을 잘한 것으로 언급하였지만,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은 미국정부 입장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일본과 이해관계가 일치했었기 때문이었다. 1905년 9월 9일에 한국을 방문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인 엘리스 루스벨트 일행의 아시아 순방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후의 일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미국공사였던 알렌의 이러한 기록은 알렌이 외교관으로 서뿐 아니라 의료선교사로 입국하여 이 땅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설립하는 등 조선과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활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이해관계 속

에서 움직이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이 우리의 전통건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판단한 대한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국을 사이에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러시아와 영국은 각각 가장 좋은 위치에 최대한의 공사관을 지었다는 사실은 서울에 위치한 유럽 각국의 공사관 건축의 입지와 규모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아 새 공사관을 짓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옛 공사관이 미국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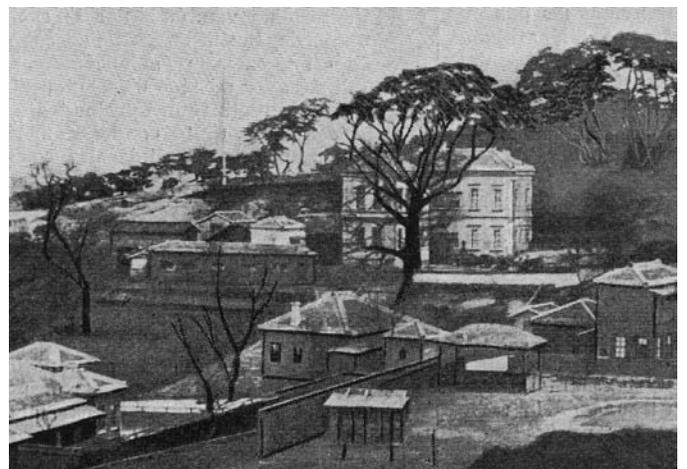
일본공관의 고전주의 건축양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 공관건축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공사관과 영사관이 일본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지지 않고,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에 따라 지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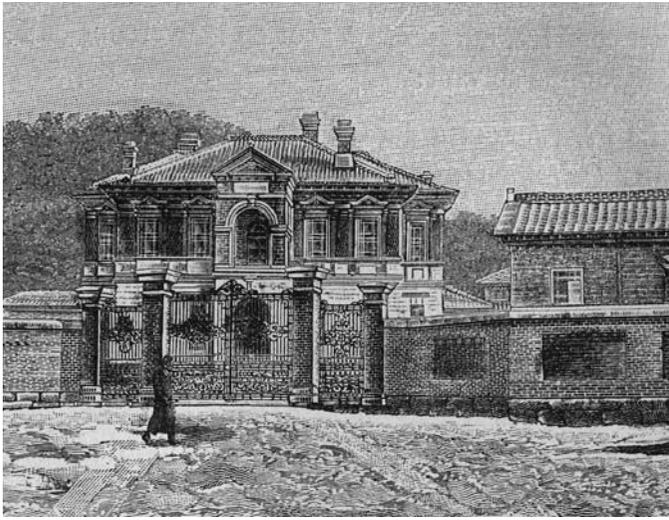
일본은 청수장을 시작으로 경운동과 남산에 공사관을 지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남대문로에 인접해서 영사관을 지은 바 있어, 외국 외교공관 중에서 가장 많은 건물을 지은 일본이지만, 한 번



〈그림 12〉 일본공사관, 경운동



〈그림 13〉 일본공사관, 남산



〈그림 14〉 일본영사관

도 자국의 건축양식으로 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도성 내 간선 도로에 인접하여 서울 시민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큰 영사관의 경우, 영사관보다 건축의 격이 높은 남산의 공사관 보다 건축양식의 완성도가 더욱 높았다. 이와 같이 일본이 공사관과 영사관 건축에서 자국의 건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서양콤플렉스에 기초한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어 한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함이었다. 개항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로부터 문화를 전수 받았던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통건축으로 자국의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짓는 것으로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국의 건축양식 보다는 서양의 건축양식으로 공사관과 영사관을 지음으로써 문명화된 자국의 문화적 역량을 한국에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들이 유럽국가와 동등한 힘을 가진 실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이 유럽국가와 달리 정치적 색채가 강한 외교공관 건축에서 자국 양식을 채택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와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손탁호텔

외교타운의 사교장, 손탁호텔

한편, 각국 공사관이 정동에 밀집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 공사관과 한인들이 친교의 공간이 생겨났다. 손탁호텔이다. 프랑스 태생의 독일인이었던 앙투아네트 손탁(Antoinette Sontag, 1854~1925)이 운영했던 호텔로 정동에 위치한 외교공관의 클럽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1885년 러시아 공사 웨베르(Carl Ivanovich Waeber)를 따라 32세의 나이로 서울에 온 손탁은 독어, 불어, 영어에 한국말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덕에 당시 외교가와 궁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손탁은 정동 외교가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대한제국기인 1902년 10월에 개관한 손탁호텔은 1888년 10월 이후 미국인 선교사 다니엘 기포드(Daniel Lyman Gifford)의 집이었으나, 1896년에 손탁이 이를 매입하여 새로 건물을 지었다.

손탁빈관(孫澤賓館) 또는 한성빈관(漢城賓館)이라고도 불린 이 호텔은 황실(Imperial Household)의 프라이빗 호텔(Private Hotel)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1층에는 식당과 일반객실이 위치하고, 위층에는 귀빈들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1910년대 광고 문안에 따르면 손탁호텔에는 '각방에 욕실이 딸린 25개의 객실이 있고, 바(Bar)와 대형 당구장이 든 별관'이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에 프랑스인 요리장이 감독하는 식당과 널찍한 정원도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각국의 언어로 접객이 가능하고, 통역자, 가이드 질꾼, 흠마의 제공도 가능하였다고 한다. 주요 정치인물이나 주울 주재 외국인들의 교류장소로 널리 사용되었던 손탁호텔을 손탁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1909년 팔레호텔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명맥만 유지되던 손탁호텔은 1917년에 부지가 이화학당으로 넘겨진 후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1922년 프라이홀 신축을 위해 철거되었다. 한편, 대한제국의 목줄을 죄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경운궁 옆에 숙소를 잡았던 곳도 바로 손탁호텔이었다. ㉞